



## 치 사

**존**경하는 대한전기협회 이원걸 회장님, 일본전기협회 고이케 노부토시(小池延俊)전무님, 그리고 내외  
귀빈과 전기인 여러분!

오늘 “제 42회 전기의 날” 기념 ‘전기산업진흥축진대회’에 참석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  
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지 1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모든 국민들이 전기의 소중함을 느끼  
고 전기인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 하신 전기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  
사를 드리며, 특히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오늘 포상의 영예를 안게 된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  
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기인 여러분!

우리나라 전력산업은 해방이후 북한의 단전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과 함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 전력산업은 발전설비 6,500만KW, 송·변전 설비용량 2억kVA를 달성하는 등 세계 12위의 전  
력강국으로 부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송배전 손실률 4%, 정전시간 연 10분대 유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  
하고 있으며, 전력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에디슨 대상을 2차례나 수상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에 참석하신 전기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 전기인 여러분 !

최근 국내외 에너지환경은 불확실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만이 경쟁력을 갖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 4.2일 최대 국정과제인 한미FTA가 타결되어 우리나라의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앞으로 미국의 관세·장벽이 철폐되어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비용절감 등 기업 경영여건 개선과 미국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인 바, 전력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적으로는 고유가의 지속,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규제의 강화 및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또한, 대내적으로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발전소 건설과 관련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에너지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환경의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IT』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 3월 『전력IT사업단』을 신설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체계화와 인프라구축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D를 통한 개발기술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분야의 “연구개발” - “개발기술의 상용화·벤처투자” - “신기술제품의 활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전력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진출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는 등 수출산업화 기반조성을 튼튼히 하고 지역별 해외 진출전략 수립과 함께 세계적인 한전 브랜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인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수출시장 개척 노력 등을 통하여 전력·전기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전기산업진흥추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대한전기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대회가 모든 전기인의 굳은 결속과 전기산업의 힘찬 전진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10일  
산업자원부 제2차관 **이재훈**